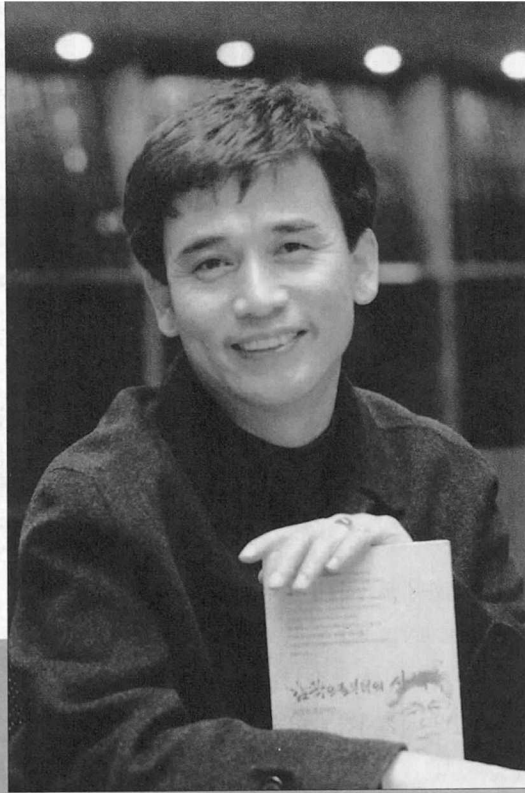


삶의 의미 깨우쳐준 따뜻한 스승

시사평론가 유시민씨가
뽑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산문들이었어요. 과정과 허세가 없는 지은이의 인품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욕심부리지 않고 본성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스승같은 책 한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행운이다. 유시민씨(39, 시사평론가)에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신영복 지음, 돌베개)은 그런 행운을 안겨준 책이다.

"이 책은 내면적인 자기성찰의 기록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지요."

그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1988년. 이른바 '87년 6월 민주화항쟁'이 끝나고 부분적이거나 정치개혁이 이뤄지던 시기다. 그는 그때가 '10여년 동안 길거리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비로소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오던 때였노라고 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할 때 이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점으로 달려갔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산문들이었어요. 과정과 허세가 없는 지은이의 인품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욕심부리지 않고 본성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감동받은 부분은 지은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다. 예컨대 여름은 '옆사람을 단지 삼십칠도의 열덩어리로 느끼게' 만들어 싫어하는 반면, 겨울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게' 해서 좋아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오랫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다.

이 책은 아직도 그의 책상 한켠에 놓여 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날 때마다 아무데나 펼쳐 읽는다. 통독하는 것은 오히려 글 한편 한편이 주는 감동을 놓칠 우려가 있어서다.

"아무리 읽어도 지겹지 않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우러나는 책입니다. 그리고 내 심리상태나 상황에 따라 글의 느낌이 다르지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책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는 특히 입시경쟁에 치진 청소년이나 출세를 위해 정신없이 달리다가 어느날 문득 허전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잔잔하지만, 울림이 큰 목소리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 김정은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팝플래트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SAMDUK

삼덕미디어
삼덕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재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가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인쇄·재본공장 : 465-4707(代)